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분류: 차별 대처전략 및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김 보 미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39세 여성 37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소경험-전통형’은 일상에서 성차별을 가장 적게 경험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유형인 반면, ‘다경험-역동형’은 성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함에 따라 성차별에 분노하여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유형이다. ‘소경험-참여형’은 직접 경험한 성차별 사건의 빈도는 적지만 여성들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 변화에의 참여 정도가 비교적 높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다경험-무관심형’은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하지 않으며 사회 변화에도 애쓰는 정도가 높지 않은 유형이다.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별 대처전략 및 반응적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차별 대처전략 중 내면화와 반응적 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대처전략 중 분리는 ‘소경험-참여형’이 다른 세 유형보다 낮았고, 약물/알코올 사용은 ‘소경험-전통형’과 ‘다경험-무관심형’이 가장 높고, ‘소경험-참여형’이 가장 낮았다. 저항과 교육/옹호의 경우 모두 ‘다경험-역동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경험-전통형’에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20-30대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함께 각 프로파일 유형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

* 본 연구는 김보미(2020)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2017)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가 한국은 성평등 국가가 아니라고 답하였으며, 201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한 성차별 문제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20-30대 여성들은 일상에 잠재된 젠더폭력 및 차별에 대한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공유하는 집합적 경험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정용림, 이나영, 2018).

한편, 구조적 성차별이 과거보다 완화되고 있음에도 20대 여성은 50대 여성보다 차별의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정, 2019). 이는 성차별에 대한 20-30대 여성의 인식 증가 뿐 아니라, 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성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성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성차별이 흔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성차별은 주로 은밀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Nadal, 2012). 이러한 현대적 성차별은 일상 속 성차별(everyday sexism; Swim et al., 2001), 미묘한 성차별(subtle sexism; Benokraitis & Feagin, 1995), 양가적 성차별(Glick & Fiske, 2001)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은하, 2018).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여성을 모욕하고 공격하

며 여성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을 무효화하는 식으로 일상에서 미묘하게 행해지는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인 성차별로, 매우 모호한 형태부터 더 분명한 형태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Basford, Offermann, & Behrend, 2014; Sue, 2010).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행해지거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거의 자동적으로 행해지기에 피해자는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e, 2010). 하지만 피해자는 미묘한 성차별과 불편함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되면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김예은, 연구진, 2018; Sue, Lin, Torino, Capodilupo, & Rivera, 2009). 이처럼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이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20-30대 여성의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할 경우 불안, 우울, 분노, 자기의심, 소외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Nadal & Haynes, 2012; Sue, 2010; Sue, Capodilupo, & Holder, 2008). 그러나 성차별 경험과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가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Meyer(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minority stress model)’에서는 성적 지향, 인종, 성별과 같은 소수자 지위에 의한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소수자 정체성의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Meyer, 2003). 그러므로 성차별 경험 후 여성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소수자 정체성이나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여성의 소수자 정체성은 여성주의 정체성이다. 여성주의

는 성차별의 존재와 부당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Hooks, 2000; Robbins, 1983), 여성주의 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여성으로서 지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를 재정의함으로써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통합시킨 상태를 말한다(박애선, 1994). 여성주의 정체성이 발달하면 성차별 상황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부정 정서를 타당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성주의 정체성의 발달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예은, 연구진, 2018; Rederstorff & Levendosky, 2007).

Downing과 Roush(1985)는 여성주의 정체성의 발달 수준에 따라 성차별에 대한 대처행동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을 습득 및 유지하는 5단계 발달 과정을 제시하였다. ‘수동적 수용(passive acceptance)’ 단계에 있는 여성은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며 남성 중심의 주류 문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만, ‘폭로(revelation)’ 단계의 여성은 구조적 성차별을 인식하여 이에 분노하며 모든 남성은 부정적으로, 모든 여성은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원론적 사고를 보인다. 한편, ‘새김-감화(embeddedness-emanation)’ 단계의 여성은 여성과의 유대감을 중시하되 대안적인 관점을 취하기 시작하고, ‘통합(synthesis)’ 단계의 여성은 현실적인 자기개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성역할을 초월하여 남성과 “유연한 휴전(flexible truce)”을 맺게 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헌신(active commitment)’ 단계의 여성은 성역할이 초월된 미래를 위해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헌신하게 된다. 성차별 경험은 여성주의 정체성을 취하도록 하며

(Nelson et al., 2008), 선행연구에서 성차별 경험은 수동적 수용과 부적 상관을,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Fischer et al., 2000).

한편, 여성주의 정체성의 수준은 어느 한 단계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려우며(Hyde, 2002) 정체성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여성의 경험에 따라 각 단계를 오르내리는 나선형의 구조로 진행된다는 주장에 따라(지영경, 공미혜, 2018; Hansen, 2002),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 아닌 Fischer와 Good(2004)이 제안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변수 중심 접근(variable-oriented perspective)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성차별 경험과 다른 변수의 관계를 선형모형(linear model)으로 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할 수 있으나, 20-30대 여성 모집단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이질적인 패턴을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Vondracek, & Porfeli, 2002).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의 양상이나 정도는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여성이 오직 한 가지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속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Downing & Roush, 1985; Hansen, 2002; Hyde, 2002; Moradi & Subich, 2002). 게다가 Downing과 Roush(1985)는 마지막 단계인 적극적 헌신까지 다다른 여성이 거의 없으며, 폭로, 새김-감화 단계의 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사실상 적극적 헌신 단계의 특성을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한 여성이 가지는 여성주의 정체성이 순차적 단계가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Yakushko(2007)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다차원적인 패턴이 형성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 가지 군집 유형이 도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수동적 수용이 높고 새김-감화가 낮은 ‘전통적 가치를 지닌 여성(women with traditional values)’, 수동적 수용이 낮고 폭로 및 적극적 헌신이 높은 ‘여성주의자 가치를 지닌 여성(women with feminist values)’, 전반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중간 점수를 보인 ‘중도 가치를 지닌 여성(women with moderate values)’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사람 중심 접근(person-oriented perspective)을 기반으로 하되, Yakushko(2007)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군집 분석이 아닌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사용함으로써 유형 결정 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줄이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외에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20~3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편, De La Fuente(1990)의 위기 보상실패 모형(crisis decompensation model)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심리적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 단계인 영향(impact) 단계에서 개인이 겪는 위기 또는 스트레스가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해결 시도(attempted resolution) 단계에서 내적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여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이때 성공적인 대처는 성장 적응(growth adjustment) 국면으로 이끌지만, 대처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보상실패 적응(decompensated adjustment) 국면으로 진입하여 우울, 불안,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면, 여성이 일상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이후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Sue, 2010). 따라서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주요한 개입으로서 여성이 지닌 차별 대처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Miller와 Kaiser(2001)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 외에, 차별이라는 특정 스트레스 사건을 접했을 때 권리 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차별 행동에 수반되는 고유한 대처전략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후 Wei 등(2010)은 차별 대처전략을 구체화하여, 차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타인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사회적 또는 인지적으로 회피하는 ‘분리(detachment)’, 감정 둔화 및 고통 감소를 위한 자가치료(self-medication)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약물/알코올 사용(drug and alcohol use)’, 차별 행동의 가해자를 직면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저항(resistance)’, 자신과 타인의 차별 인식을 높이고 권리 옹호 노력을 펼치는 ‘교육/권리 옹호(education/advocacy)’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Wei 등(2010)은 소수자 정체성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개인은 차별에 대한 대처로서 내면화 또는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한편, 후기 단계에 있는 개인은 저항이나 교육/권리 옹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체성 발달 수준에 따른 대처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Wei 등(2010)이 제시한 차별 대처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한편, 우울, 분노, 부당함 등의 감정 경험을 측정하는 울분 지수는 남녀 성인 중 20대 여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9). 심한 울분을 느끼는 경우 공격성이 표출되거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성인 초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울분을 보이는 것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 경험, 즉 성차별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20대 여성 73.5%, 남성 33.1%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이러한 극명한 인식 차이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상에서 성별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설전이 오가는가 하면, 양성 간 물리적 폭력으로 확대되기도 한다(권혁준, 2018).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역할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던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 현 20-30대 여성들은 성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특성을 지닌다(이영화, 김경연, 2013).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분노표출과 관련하여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에 주목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Dodge & Coie, 1987). Sue(2010)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 중 하나로 ‘건강한 편집증(healthy paranoia)’를 꼽았다. 만성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이 주류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보이는 모호한 행동의 의도와 동기를 의심하고 백인에 대한 과각성(hypervigilance) 상태를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성차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상에서 반복적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기반응으로 과각성 상태가 되며(Sue, 2010), 과거의 성차별 경험과 관련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모호한

자극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분노표출, 공격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다. 성차별 경험이 화병을 예측하고(김은하, 백혜영, 2018),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이 분노억제를 거쳐 전위된 공격성을 예측하였다는 결과(손지빈, 2019)와는 반대로,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이 분노표출을 예측하지 못했던 연구결과(박은지, 2020)도 있다. 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는 여성의 성차별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른 집단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별 대처전략 외에 반응적 공격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20-30대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국내의 성차별 관련 연구들은 현 20-30대 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평등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경쟁한다는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다(김예은, 연구진, 2018; 손지빈, 2019; 오지윤, 2019). 또한 선행연구에서 18-25세의 성인 진입기 여성과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 간에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차이가 있는 반면(Erchull et al., 2009), 20대 여성과 30대 여성 간에는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iggemann & Stevens,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

석을 통해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유형화하여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개입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이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 연구 참여에 따르는 이익과 해, 참여자로서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설명을 읽은 뒤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하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며 모든 참여자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한 사례가 지급되었다. 수집된 401명의 자료 중 연령 기준과 불일치한 3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명, 중복 응답한 1명, 표준화 점수(Z-score)변환 시 절대값 3을 초과하는 극단적 수치를 나타낸 16명을 제외한 후, 총 37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

상의 연령 범위는 20-39세였으며($M=28.26$, $SD=5.0$), 20대 210명(56.8%), 30대 160명(43.2%)이었다.

측정도구

일상 속 성차별 경험

김은하(2018)가 한국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일상 속 성차별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9문항(예. 남자로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여자는 결혼 잘 하는 게 최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및 여성의 미모 강조 5문항(예.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젊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으로 나뉜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경험한 적 없다 ~ 5: 매우 자주 경험했다)로 평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 속에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만 19세 이상 여성 대상의 김은하(2018)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88, 여성의 미모 강조 .73, 전체 문항 .90으로 나타났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Fischer 등(2000)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척도(Feminist Identity Composite: FIC)를 한국어로 번안한 김예은(2018)의 척도 중 번역이 부자연스러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동적 수용 7문항(예. 나는 전통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폭로 8문항(예. 나는 사

회에서 여성으로서 억압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최근해야 알게 되었다), 새김-감화 4문항(예. 나는 여성학에 큰 관심이 있다), 통합 6문항(예. 나는 나의 독특한 개성과 나의 여성적인 특성을 조화시켰다고 믿는다), 적극적 헌신 8문항(예. 나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평등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총 33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각 하위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여성주의 정체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예은(201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수동적 수용 .76, 폭로 .87, 새김-감화 .88, 통합 .71, 적극적 헌신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3, .85, .89, .66, .84로 나타났다.

차별 대처전략

본 연구를 위해 Wei 등(2010)의 차별 대처 척도(Coping with Discrimination Scale)를 번역-역번역 과정에 따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내면화 5문항(예. 내가 성차별 사건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분리 5문항(예. 나는 성차별을 겪은 뒤 내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약물/알코올 사용 5문항(예. 나는 성차별 경험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려고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다), 저항 5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의 성차별에 대한 무지한 신념에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교육/옹호 5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려준다)을 포함한다.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항상 그렇다)이며, 각 하위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대처전략을 자주 사용함을 의미한다.

Wei 등(2010)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내면화 .87, 분리 .73, 약물/알코올 사용 .78, 저항 .83, 교육 및 옹호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2, .72, .79, .78, .88이었다.

반응적 공격성

Raine 등(2006)의 반응적-주도적 공격성 질문지(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RPQ)를 오인수(2010)가 번안하고 이지후(2015)가 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도적 공격성 12문항, 반응적 공격성 11문항, 총 23문항 중 반응적 공격성 하위척도(예. 누가 화나게 하면 신경질을 냈다)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지후(2015)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자료분석

SPSS 22.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Mplus 7.0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도출된 프로파일 유형 간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일 때 정규성이 충족된다는 Kline(2015)의 기준을 만족시켰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표 1 참조),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중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 강조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수동적 수용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13, p<.05$; $r=-.26, p<.01$), 수동적 수용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15\sim.53, p<.01$). 또한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차별 대처전략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r=.20\sim.44, p<.01$) 반응적 공격성과는 경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1, p<.05$). 하지만 여성의 미모 강조는 약물/알코올 사용과 분리($r=.27, .36, p<.01$)에서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용적 수용은 차별 대처전략의 내면화, 약물/알코올 사용, 분리와 정적 상관($r=.22\sim.41, p<.01$), 저항,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37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일상 속 성차별 경험	1.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												
	2. 여성의 미모 강조	.68**	-											
여성 주의 정체성 차원	3. 수동적 수용	-.13*	-.26**	-										
	4. 폭로	.53**	.51**	-.47**	-									
	5. 새김-감화	.31**	.35**	-.46**	.63**	-								
	6. 통합	.15**	.22**	-.07	.23**	.28**	-							
차별 대처 전략	7. 적극적 헌신	.29**	.38**	-.46**	.56**	.62**	.46**	-						
	8. 내면화	.21**	.05	.22**	.08	.09	.02	.09	-					
	9. 분리	.22**	.27**	.39**	.01	-.10	-.15**	-.19**	.49**	-				
	10. 약물/알코올 사용	.20**	.36**	.41**	-.10*	-.15**	-.13*	-.20**	.39**	.53**	-			
	11. 저항	.31**	-.07	-.32**	.34**	.33**	.24**	.41**	-.04	-.15**	.04	-		
12. 교육/옹호	.44**	-.05	-.39**	.55**	.57**	.33**	.62**	.18**	-.02	.02	.58**	-		
13. 반응적 공격성	.11*	.05	.10	.06	.02	.08	.01	.05	.10	.11*	.37**	.15**	-	
	M	2.81	3.77	1.95	3.56	3.61	3.42	3.69	2.40	2.02	1.45	3.46	3.39	2.68
	SD	.89	.79	.68	.73	.87	.55	.61	.94	.86	.80	1.01	1.17	.64
	왜도	.16	-.24	.51	-.24	-.29	.06	-.15	.52	1.05	1.78	.11	.15	.09
	첨도	-.68	-.72	-.67	-.61	-.46	-.36	.40	-.13	.74	1.91	-.16	-.84	-.12

* $p<.05$, ** $p<.01$

교육/옹호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32, -.39, p<.01$). 폭로와 새김-감화는 저항, 교육/옹호와 정적 상관($r=.33\sim.57, p<.01$), 약물/알코올 사용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10, p<.05; r=-.15, p<.01$). 통합과 적극적 헌신은 저항, 교육/옹호와 정적 상관($r=.24\sim.62, p<.01$), 약물/알코올 사용, 분리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13, p<.05; r=-.20\sim-.15, p<.01$)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모든 하위요인은 반응적 공격성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r=.01\sim.10, p>.05$), 차별 대처전략 중 저항($r=.11, p<.05$), 약물/알코올 사용, 교육/옹호만 반응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15\sim.37, p<.01$).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분류 집단의 수를 1개씩 늘려 모형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유형 결정 시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와 BIC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며,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k 와 $k-1$ 개일 경우를 비교, 검증하는 모형 간 비교지수인 LMR-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과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는 p 값이 유의할 경우 잠재프로파일의 개수가 $k-1$ 개가 아닌 k 개인 모형을 선택한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인 엔트로피(Entropy) 지수는 0~1의 값을 보이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적절한 분류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분류 비율을 살펴볼 때 최소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이 5% 이상인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Jung & Wickrama, 2008).

최적의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AIC와 BIC 모두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높으며, 5개일 때 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엔트로피 지수는 프로파일이 4개일 때 .809로 가장 높아 1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LMR-LRT와 BLRT는 p 값이 모두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 프로파일별 분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2~5개인 경우 모두 최소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이 기준치인 5%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잠재 프로파일을 4개 또는 5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표 2. 잠재 프로파일의 분류 기준

모형	정보지수			분류의 질 Entropy	모형 비교		하위집단별 최대/최소 비율(%)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2	6590.726	6676.823	6607.024	.807	.00	.00	53.6/46.4
3	6938.973	7057.648	6962.461	.782	.00	.00	45.7/25.9
4	6315.467	6464.181	6343.619	.809	.00	.00	28.3/19.9
5	6280.750	6460.772	6314.829	.802	.046	.00	26.2/7.9

주. LMR-LRT와 BLRT는 p 값을 제시하였음.

수 있다. 그러나 잠재 프로파일을 5개로 분류하였을 때는 특정 두 프로파일 간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 강조, 수동적 수용, 폭로, 새김-감화의 표준점수 차이가 0.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 프로파일의 패턴은 4개로 분류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즉, 잠재 프로파일을 5개로 분류하더라도 4개로 분류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으로써 해석상 질적으로 새로운 특징을 보이는 하위집단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석의 간명성 및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라 추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는 [그림 1]과 같으며, 기술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통합적인 점수 비교가 용이하도록 점수를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잠재 프로파일 유형 1은 성차별 경험

이 낮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인 수동적 수용이 가장 높으며,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인 헌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한 성차별 사건의 빈도가 가장 낮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며 기존의 사회구조를 받아들이는 집단으로, ‘소경험-전통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유형 2는 성차별 경험이 가장 높고 수동적 수용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속에서 성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고 분노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려는 의지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다경험-역동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은 성차별 경험이 적고 수동적 수용 수준이 낮은 반면, 폭로는 중간 수준, 새김-감화와 통합 그리고 적극적 헌신은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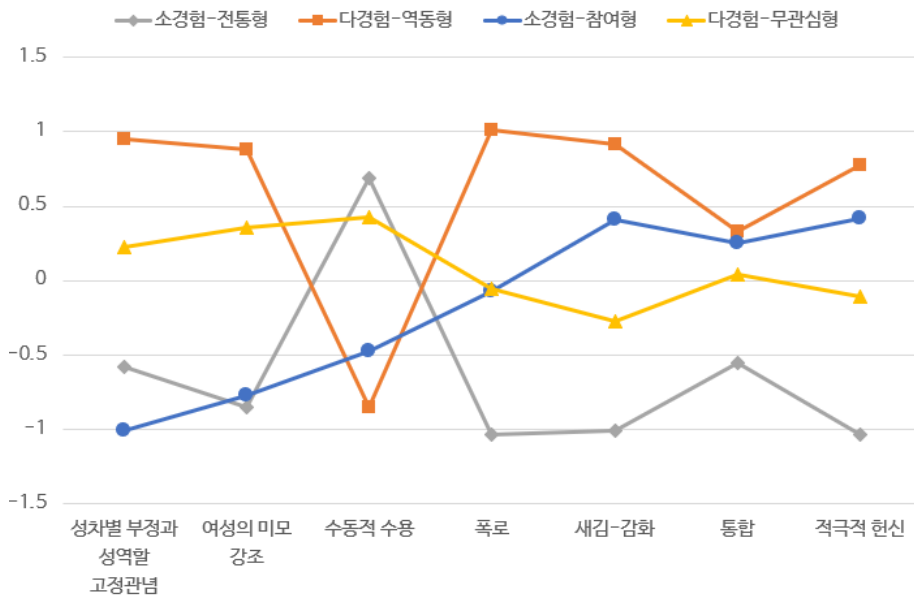


그림 1. 잠재 프로파일 유형

표 3.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기술통계 (N=370)

구분	유형1. 소경험-전통형 (N=91, 24.5%)		유형2. 다경험-역동형 (N=104, 28.3%)		유형3. 소경험-참여형 (N=72, 19.9%)		유형4. 다경험-무관심형 (N=103, 27.3%)	
	M	SD	M	SD	M	SD	M	SD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0.58	.69	.95	.70	-1.01	.52	.23
여성의 미모 강조	-0.85	.77	.88	.57	-0.77	.61	.36	.61
수동적 수용	.69	.79	-0.85	.44	-0.47	.57	.43	.81
폭로	-1.03	.67	1.01	.49	-0.07	.74	-0.05	.58
새김-감화	-1.01	.70	.92	.57	.41	.63	-0.27	.67
통합	-0.55	.74	.33	1.08	.25	.88	.04	.80
적극적 헌신	-1.03	.62	.78	.74	.42	.65	-0.11	.61

주. 변인 간 통합적인 비교를 위해 변인의 값을 표준화 점수(Z)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성차별 사건은 적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각하고 여성들과 연대하여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소경험-참여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 4는 성차별 경험이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동적 수용이 높고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회 변화를 위해 애쓰는 정도가 높지 않은 집단으로, ‘다경험-무관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사후 검정은 등분산을 만족할 경우 Scheffe, 만족하지 않을 경우 Dunnett T3을 사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별 대처전략의 저항($F=25.60, p<.001$), 약물/알코올 사용($F=13.86, p<.001$), 분리($F=8.14, p<.001$), 교육/옹호($F=76.7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차별 대처전략의 내면화와 반응적 공격성에서는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분리는 ‘다경험-역동형’, ‘소경험-전통형’, ‘다경험-무관심형’이 ‘소경험-참여형’보다 높았으며, 약물/알코올 사용의 경우 ‘소경험-전통형’, ‘다경험-무관심형’에서 가장 높고 ‘다경험-역동형’, ‘소경험-참여형’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저항과 교육/옹호의 경우

표 4.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N=370)

구분	유형1. 소경험-전통형 (N=91)		유형2. 다경험-역동형 (N=104)		유형3. 소경험-참여형 (N=72)		유형4. 다경험-무관심형 (N=103)		F	사후 검정
	M	SD	M	SD	M	SD	M	SD		
	내면화	2.40	1.04	2.56	.97	2.18	.79	2.41		
분리	2.27	.92	1.96	.80	1.65	.63	2.13	.92	8.14***	3<1,2,4
약물/알코올	1.77	1.02	1.29	.59	1.07	.28	1.60	.87	13.86***	3<2<1,4
저항	2.89	.85	4.03	.94	3.49	1.06	3.38	.85	25.60***	1<3,4<2
교육/옹호	2.51	.84	4.45	.86	3.41	1.01	3.09	.99	76.70***	1<3,4<2
반응적 공격성	2.63	.62	2.73	.70	2.65	.64	2.71	.60	.57	-

*** p<.001

주. 사후 검정은 교육 및 옹호의 경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Scheffe를 사용하였으며, 분리,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저항의 경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Dunnett T3을 사용하였음.

‘다경험-역동형’이 ‘소경험-참여형’, ‘다경험-무관심형’보다 높았으며, ‘소경험-전통형’에서 가장 낮았다.

논 의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중심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유형에 따라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과 반응적 공격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네 가지 프로파일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유형인 ‘소경험-전통형’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 하위요인인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 강조의 수준이 낮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동적 수용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그 외 하위요인은 가장 낮은 유형이다. 이는 성차별 경험이 수동적 수용과 부적 상관,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던 선행연구 결과(Fischer et al., 2000)와 일치한다. Yakushko(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동적 수용의 수준이 가장 높으며 폭로, 새김-감화 차원이 낮은 ‘전통적 가치를 지닌 여성’ 군집 유형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두 번째 유형인 ‘다경험-역동형’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 하위요인의 수준이 가장 높고,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수동적 수용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다른 하위요인들의 수준은 가장 높은 유형이다. 이는 성차별 사건을 경험할수록 수동적 수용 수준이 낮아지며,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Fischer et al., 2000)에 부합한다. 또한 Yakushko(2007)의 연구에서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

차원에 비해 수동적 수용 차원이 두드러지게 낮은 ‘여성주의자 가치를 지닌 여성’ 군집 유형과도 유사하다.

세 번째 유형인 ‘소경험-참여형’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의 빈도가 낮으며 수동적 수용 수준이 낮은 한편, 폭로는 중간 수준, 새김-감화와 통합 그리고 적극적 헌신은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경험-참여형’에 속한 여성들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빈도는 적지만,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못한 여러 형태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이에 문제의식을 느낌으로써 ‘소경험-전통형’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30대 여성들은 타인이 차별받는 상황을 목격하는 대리 차별(vicarious discrimination)을 경험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2019)의 분석 결과,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 중 성차별적인 내용의 댓글은 전체의 30%였으며, 성차별 대상은 성인 여성이 62.5%로 성인 남성 8.1%와 크게 대비되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상에서 성차별적 표현이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되며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온라인상에서 20-30대 여성의 성차별 경험이 드물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경험-참여형’에 속한 여성들은 성차별을 경험한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환원하여 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주변 남성들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표현하지는 않아 중간 정도의 폭로, 평균 이상의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주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Downing과 Roush(1985)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 중 적극적 헌신 단계로 나아가는 여성이 드물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헌신 차원이 높은 ‘다경험-역동형’과 ‘소경험-참여형’에 속한 여성이 전체 여성 중 48.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Downing과 Roush(1985)가 모델 개발 시 기반으로 했던 1960-70년대 여성들과 달리, 현 시대의 여성들은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여성 문제에 대한 의제를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문화는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이 용이하도록 돕기에(김은주, 2019) 여성들의 전반적인 적극적 헌신 수준 또한 과거에 비해 향상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 유형인 ‘다경험-무관심형’은 일상 속 성차별 경험의 성차별 부정 및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 강조가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동적 수용이 높고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 경험이 폭로, 새김-감화, 통합, 적극적 헌신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Fischer et al., 2000)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양상은 성차별 경험 이후 여성들이 느끼는 무력감(powerlessness)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Ponterotto, Utsey, & Pedersen, 2006). 여성들은 미묘한 성차별 경험 후 가해자에 직면하여 화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낼 경우 지나치게 과민하다는 말을 듣게 되며,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Carter, 2007; Sue, 2010).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

의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도 주저하게 만든다(Torino et al., 2018). 이는 안혜정 등(2017)의 연구에서 현 청년 세대는 사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사회적 변화를 회피함으로써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별 대처전략 중 분리, 약물/알코올 사용, 저항, 교육/옹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면화와 반응적 공격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먼저, 타인과 거리를 두고 사회적, 인지적으로 회피하는 대처 전략인 분리의 경우, ‘소경험-참여형’이 다른 세 유형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여성주의자와 동일시하는 여성들은 성차별 경험 이후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Leaper & Arias, 2011). ‘소경험-참여형’에 속한 여성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적인 성차별 경험은 적지만, 제3자가 차별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대리 차별 경험이 빈번할 수 있다. 대리 차별 경험이 고통이나 분노, 불안, 슬픔 등을 유발하긴 하지만 자신이 직접 겪은 차별경험보다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Umaña-Taylor et al., 2015), 타인과 거리를 두거나 인지적으로 회피하는 분리 전략을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약물/알코올 사용은 ‘소경험-전통형’과 ‘다경험-무관심형’이 가장 높았으며, ‘다경험-역동형’, ‘소경험-참여형’ 순으로 높았다. 자기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동일시한 여성은 상황에

직면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등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Leaper & Arias, 2011), 그렇지 않은 여성은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적응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Landrine & Klonoff, 1997). 따라서 빈번한 성차별을 경험했지만 이에 무관심한 ‘다경험-무관심형’에 속한 여성, 그리고 성차별을 거부하거나 성차별 경험 후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도식이 부재한(Landrine & Klonoff, 1997) ‘소경험-전통형’에 속한 여성은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다른 프로파일 유형에 속한 여성에 비해 약물 및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저항과 교육/옹호는 모두 ‘다경험-역동형’에서 가장 높았고, ‘소경험-참여형’과 ‘다경험-무관심형’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소경험-전통형’이 가장 낮았다. 이는 여성주의 정체성의 수동적 수용 차원이 강한 여성은 자기침묵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Watson & Grotewiel, 2016), 폭로 차원이 두드러지는 여성은 성차별적 사회 및 남성에 대한 분노,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며(Downing & Roush, 1985), 자신을 여성주의자로 동일시하는 여성들은 차별 피해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공동 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Yoder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차별 가해자를 직면하여 가해자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저항의 경우 프로파일 유형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반응적 공격성에서는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차별 대처전략의 저항과 반응적 공격성이 경미하지만 정적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해석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반복적인 성차별을 경험할 경우 성차별과 관련한 부정적 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모호한 사회적 단서를 성차별과 관련된 것으로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반응적 공격성을 표출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Dodge, 2006; Sue, 2010)을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유형 간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응적 공격성 척도는 성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위협, 좌절, 도발 자극에 대한 과각성과 방어적인 공격성을 광범위하게 측정한다. 따라서 주로 남성과 대중매체에 의해 행해지는 일상 속 성차별로 인한 보다 특수한 형태의 공격성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프로파일 유형 간의 차이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은 여성의 성차별 경험 이후 대응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기존의 성차별 및 마이크로어그레션 연구들은 변인 중심 접근에 기반하여 차별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선형 관계를 밝히는데 주목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접근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일상 속 성차별과 여성주의 정체성 하위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20-30대 여성 모집단 내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별 대처전략인 분리, 약물/알코올 사용, 저항, 교육/옹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선행연구에서 차별 대처전략 연구는 인종차별과 성소수자차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대처전략을 살펴본 연구는 일부 질적 연구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프로파일 유형의 성차별 경험 수준과 두드러지는 여성주의 정체성 하위 차원에 따라 성차별에 대한 대처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즉, 성차별 경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인이 경험한 성차별의 수준 뿐 아니라, 여성주의 정체성의 다양한 차원이 어떤 식으로 발달해 있는지 고려하여 그 양상에 따라 필요한 개입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주의 정체성과 차별에 대한 대처전략이 성차별 경험 후 여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Reederstoffs & Levendosky, 2007; Sue, 2010)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후속 연구는 각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이들의 적응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성 또는 대중매체에 의한 외부적 성차별 경험만을 측정하였으며, 여성과 자신, 또는 다른 여성 사이의 내면화된 성차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김은하, 2018). 추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별 대처전략 척도에서 분리의 평균이 6점 척도에서 2.02점, 약물/알코올 사용의 평균은 1.4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20-30대 여성이 성차별 경험 시 실제로 사용하는 대처전략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현실에 부

합하는 차별 대처전략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 왜곡이 발생했을 수 있다. 특히 차별 대처전략 중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또는 반응적 공격성의 점수를 낮게 보고하거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적극적 헌신의 수준을 높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응답을 수집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혼이 82.7%, 학생 또는 직장인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집단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그에 따른 차별 대처전략 및 반응적 공격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장기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준 (2018). 이수역 ‘여혐·남혐’ 논란속 어 느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509810>에서 검색.
- 김예은, 연규진 (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99-523.
- 김은주 (2019). 제 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1-32.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 김은하, 백혜영 (2018).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173-193.
- 박애선 (199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지 (2020). 성인 여성의 성차별 인식이 분노 표현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정체감의 조절효과. 김천대학교 글로벌휴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지빈 (2019). 20~30대 여성들의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정, 안정민, 서예지, 정태연 (2017). 한국 청년세대의 체제정당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그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47-275.
- 오지윤 (2019). 20-30대 여성의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 집단자존감과 자기침묵의 순차적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이정혜 (2005). 아동, 청소년 상담 :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한 아동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상담학연구, 6(3), 901-918.
- 이연정 (2019). 성차별 인식에 대한 남녀 및 세대 간 차이.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 김경연 (201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인 정육구, 불안 및 분노억제와 관계적 공격 성 간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51(2), 219-228.
- 정용림, 이나영 (2018). ‘포스트/강남역’: 성차별 적 사회에 대한 집합적 저항과 페미니스트 주체 (재)구성의 가능성. *페미니즘 연 구*, 18(1), 181-228.
- 지영경, 공미혜 (2018). 부산지역 반(反) 성폭력 상담활동가의 성장경험 연구-여성주의 정 체성 발달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8 (2), 7-46.
- 한국여성민우회 (2017). 2017 성차별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19433> 에서 검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 응 방안 연구.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0&act=view&nPage=1&otp_id=OTP_0000000000004338 에서 검색.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인터넷에서 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방안 연구.
http://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info_Report_main&nttId=14437&menuNo=040000&subMenuNo=040200&thirdMenuNo=040201 에서 검색.
- Basford, T. E., Offermann, L. R., & Behrend, T. S. (2014). Do you see what I see? Perceptions of gender microaggressions in the workpla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3), 340-349.
- Benokraitis, N. V., & Feagin, J. R. (1995). *Modern sexism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rkowitz, L. (2003). Affect,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 804-82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kowitz, L. (2012). A different view of anger: The cognitive neoassociation conception of the relation of anger to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8(4), 322-333.
- Brittian, A. S., Toomey, R. B., Gonzales, N. A., & Dumka, L. E. (2013).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Mexican origi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and cultural orient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7(1), 4-19.
- Carr, E. R., Szymanski, D. M., Taha, F., West, L. M., & Kaslow, N. J. (2014).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multiple oppressions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The role of internaliz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2), 233-245.
- Carter, R. T. (2007). Racism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njury: Recognizing and assessing race-based traumatic stres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5, 13 - 105.
- Craney, R. S., Watson, L. B., Brownfield, J., & Flores, M. J. (2018). Bisexual women’s discriminatory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Exploring the roles of coping and LGBTQ community connectednes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5(3), 324-337.
- De La Fuente, R. (1990).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the 1985 earthquakes in Mexico.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 19(2), 21-29.
- Dodge, K. A. (2006). Translational science in action: Hostile attributio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3), 791-814.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owning, N. E., & Roush, K. L. (1985). From passive acceptance to active commitment: A model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for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4), 695-709.
- Dworkin, A. G., & Dworkin, R. J. (Eds.). (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3rd ed.). Orlando, FL: Harcourt Brace.
- Erchull, M. J., Liss, M., Wilson, K. A., Bateman, L., Peterson, A., & Sanchez, C. E. (2009). The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model: Relevant for young women today? *Sex Roles, 60*(11-12), 832-842.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verett, J. E., Camille Hall, J., & Hamilton-Mason, J. (2010). Everyday conflict and daily stressors: Coping responses of Black women. *Affilia, 25*(1), 30-42.
- Fischer, A. R., Tokar, D. M., Mergl, M. M., Good, G. E., Hill, M. S., & Blum, S. A. (2000). Assessing women's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studies of convergent, discriminant, and structural valid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1), 15-29.
- Fischer, A. R., & Good, G. E. (2004). Women's Feminist Consciousness, Ang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37-446.
- Gibbons, F. X., Etcheverry, P. E., Stock, M. L., Gerrard, M., Weng, C. Y., Kiviniemi, M., & O'Hara, R. E. (2010). Exploring the link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and substance use: What mediates? What buff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85-801.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Hubbard, J. A., Smithmyer, C. M., Ramsden, S. R., Parker, E. H., Flanagan, K. D., Dearing, K. F., ... & Simons, R. F. (2002). Observational, physiological, and self-report measures of children's anger: Relations to reactive versus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3*(4), 1101-1118.
- Hansen, N. D. (2002). Reflections on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ory, measurement,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1), 87-95.
- Hirsch, J. K., Visser, P. L., Chang, E. C., & Jeglic, E. L. (2012). Race and ethnic differences in hope and hopelessness as moder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0*(2), 115-125.
- Hooks, b. (2000).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 center. Pluto Press.
- Hyde, J. S. (2002).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The current state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1), 105-110.
- Judson, S. S. (2014). Sexist discrimination and gender microaggressions: An exploration of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women's experiences of sexis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kron). Retrieved from <https://etd.ohiolink.edu/>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ucharska, J. (2018). Feminist identity styles, sexual and non-sexual traumatic ev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sample of polish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1), 117-136.
- Landrine, H., & Klonoff, E. A. (1997).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evalence, consequences, remedies*. Newbury Park, CA: Sage.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aper, C., & Arias, D. M. (2011). College women's feminist identity: A multidimensional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coping with sexism. *Sex Roles, 64*(7-8), 475-490.
- Lewis, J. A., Mendenhall, R., Harwood, S. A., & Hunt, M. B. (2013). Coping with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among Black wome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frican American Studies, 17*(1), 51-73.
- McDavitt, B., Iverson, E., Kubicek, K., Weiss, G., Wong, C. F., & Kipke, M. D. (2008). Strategies used by gay and bisexual young men to cope with heterosexism.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20*(4), 354-380.
- Mellor, D. (2004). Responses to racism: A taxonomy of coping styles used by Aboriginal Australia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1), 56-71.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iller, C. T., & Kaiser, C. R. (2001).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coping with stigma.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73-92.
- Miranda, R., Polanco-Roman, L., Tsypes, A., & Valderrama, J. (2013). Perceived discrimination, ruminative subtypes, and risk for depressive symptoms in emerging adulthood.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9*(4), 395-403.
- Moradi, B., & Subich, L. M. (2002).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measures: Comparing the psychometrics of three instrum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1), 66-86.
- Murphy, L. R. (1996). Stress management in work settings: a critical review of the health effec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1*(2), 112-135.
- Nadal, K. L., & Haynes, K. (2012). The effects of sexism, gender microaggressions,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on women'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In P. K. Lundberg-Love, K. L. Nadal, & M. A. Paludi (Eds.), *Women's psychology. Women and mental disorders*

- (pp. 87-101). Praeger/ABC-CLIO.
- Nelson, J. A., Liss, M., Erchull, M. J., Hurt, M. M., Ramsey, L. R., Turner, D. L., & Haines, M. E. (2008). Identity in action: Predictors of feminist self-identification and collective action. *Sex Roles, 58*(9-10), 721-728.
- Ngamake, S. T., Walch, S. E., & Raveepatarakul, J. (2016). Discrimination and sexual minority mental health: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coping.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3*(2), 213-226.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Ponterotto, J. G., Utsey, S. O., & Pedersen, P. B. (2006). *Preventing prejudice: A guide for counselors, educators, and parents*. Los Angeles, CA: Sage.
- Rederstorff, J. C., & Levendosky, A. A. (2007). Clinical applications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An illustrative case study. *Clinical Case Studies, 6*(2), 119-130.
- Robbins, J. H. (1983). Complex triangles: Uncovering sexist bias in relationship counseling. In J. H. Robbins & R. J. Siegel (Eds.), *Women changing therapy* (pp. 54-71). New York: Haworth.
- Robbins, J. H., & Siegel, R. J. (Eds.). (1985). *Women changing therapy: New assessments, values & strategies in feminist therapy*. New York: Harrington Park Press.
- Saunders, K. J., & Kashubeck-West, S. (2006). The relations among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gender-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2), 199-211.
- Seaton, E. K., Upton, R., Gilbert, A., & Volpe, V. (2014). A moderated mediation model: Racial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racial identity among Blac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85*(3), 882-890.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Wiley.
- Sue, D. W., Capodilupo, C. M., & Holder, A. M. B. (2008). Racial microaggressions in the life experience of Black American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9*, 329 - 336.
- Sue, D. W., Lin, A. I., Torino, G. C., Capodilupo, C. M., & Rivera, D. P. (2009). Racial microaggressions and difficult dialogues on race in the classroom.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2), 183-190.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Szymanski, D. M., & Feltman, C. E. (2014). Experiencing and coping with sexually objectifying treatment: Internalization and resilience. *Sex Roles, 71*(3-4), 159-170.
- Szymanski, D. M., Moffitt, L. B., & Carr, E. R. (2011).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dvances to theory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1), 6-38.
- Szymanski, D. M., & Obiri, O. (2011). Do religious coping styles moderate or mediate the external and internalized racism-distress

- link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3), 438-462.
- Tiggemann, M., & Stevens, C. (1999). Weight concern across the life span: Relationship to self esteem and feminist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6(1), 103-106.
- Torino, G. C., Rivera, D. P., Capodilupo, C. M., Nadal, K. L., & Sue, D. W. (2018). *Microaggression theory: Influence and implications*. NY: John Wiley & Sons.
- Umaña-Taylor, A. J., Tynes, B. M., Toomey, R. B., Williams, D. R., & Mitchell, K. J. (2015). Latino adolescents' perceived discrimination in online and offline settings: An examination of cultur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51(1), 87-100.
- Vondracek, F. W., & Porfeli, E. (2002). Integrating person-and function-centered approaches in career development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3), 386-397.
- Watson, L. B., Flores, M. J., Grotewiel, M., Brownfield, J. M., Aslan, S., & Farrell, M. (2018). How do feminist-identified women cope with discrimination? A feminist standpoint and grounded theory stud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2(3), 291-312.
- Watson, L. B., & Grotewiel, M. (2016). The protective role of commitment to soci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xist experiences and self-silencing. *Sex Roles*, 75(3-4), 139-150.
- Wei, M., Alvarez, A. N., Ku, T. Y., Russell, D. W., & Bonett, D. G.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ping with Discrimination Scal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3), 328-344.
- Witte, T. H., & Sherman, M. F. (2002). Silencing the self and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Psychological Reports*, 90, 1075-1083.
- Yakushko, O. (2007). Do feminist women feel better about their lives? Examining patterns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and women's subjective well-being. *Sex Roles*, 57(3-4), 223-234.
- Yoder, J. D., Tobias, A., & Snell, A. F. (2011). When declaring "I am a feminist" matters: Labeling is linked to activism. *Sex Roles*, 64(1-2), 9-18.
- Zucker, A. N., & Bay Cheng, L. Y. (2010). Minding the gap between feminist identity and attitudes: The behavioral and ideological divide between feminists and non labelers. *Journal of Personality*, 78(6), 1895-1924.
- 1차원고접수 : 2020. 07. 19.
심사통과접수 : 2020. 09. 07.
최종원고접수 : 2020. 09. 18.

Latent Profiles based on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and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Differences in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Reactive Aggression

Bo-mi Kim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atterns of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and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and examin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reactive aggression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For this purpos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from 370 women aged 20-39, and four types were derived: 'little experience-traditional type', 'many experiences-dynamic type', 'little experience-participative type' and 'many experiences-indifferent type'.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reactive aggression depending on the typ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ub-factors of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except internalization and reactive aggression. Separation was lower in 'little experience-participative type' than in the other three types. Drugs and alcohol use was the highest in 'little experience-traditional type', 'many experiences-indifferent type' and the lowest in 'little experience-participative type'. Both resistance and education/advocacy were the highest in 'many experiences-dynamic type' and the lowest in 'little experience-traditional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proper intervention in the formation of feminism identity as well as differentiated psychological intervention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re necessary to reduce th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have experienced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Key words : gender microaggression, feminist identity dimensions,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reactive aggression